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박선주¹⁾ 강민주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만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근무시간과 자녀의 수를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및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짧고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해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문열기 행동간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많이 할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적게 할수록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맞벌이 가정, 아버지 양육 참여도, 성역할태도, 문지기 역할

I. 서론

최근 TV,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는 아버지가 양육주체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을 다룬 내용이 자주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성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왔으며 산업화 이후에는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남편은 가족의 생계

* 본 연구는 '박선주(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푸르니 수지어린이집 교사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를 부양하고, 가사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역할은 아내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아버지의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문화와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화하였다. 부부 공동양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아버지의 양육 참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16년 13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53.5%이며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는 43.8%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높았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가사분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아내가 주로 한다는 결과가 79.6%로 가장 높았으며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답변은 17.7%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16). 아버지 양육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통해 양육과 가사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요인을 알아보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부모의 근무유형,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동의 연령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이고(이재법, 2015), 근무시간이 일정할 경우 양육 참여도가 높았으며(이숙현·권영인, 2009; 조금희, 2016), 주말출근이나 야근이 많을수록 양육 참여에 부담감을 가졌다(채화영·이기영, 2013).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높아졌다(이재법, 2015).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조금희, 2016). 또한, 취학 전 유아기의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아동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DeLuccie, 1995),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았다(박익새·남은영, 2015; 이영환, 2008; 이은실·최혜영, 2009). 부모의 근무유형, 아동의 연령, 맞벌이 여부 등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만 3~4세 유아를 가진 맞벌이 가정의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의 수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외 연구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Marsiglio, 1991),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성희·한은주, 1998). 즉, 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녀의 수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부모 외에 양육을 지원해 주는 사람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외벌이 가정보다 조모가 손자녀와 가까이 살거나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손자녀 지지 및 대리모 역할 부분에서 외벌이 가정보다 높은 수준의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과(이미숙·조병은·강란혜, 2004)를 통해 양육지원자의 유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는 부모의 근무시간, 아버지의 교육수준, 자녀의 수 및 양육지원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Kluckohn과 Strodtbeck(1961)는 가치관이란 인간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서와 방향을 제공하며 인간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화영·유성모 2011에서 재인용). 즉, 아버지가 양육 참여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아버지의 심리적인 믿음이나 가치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변인에 대하여 Lamb-Pleck 모델에서는 기술, 동기, 사회적 지지,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Lamb, Pleck & Charnove et al., 1987; 이영환, 2008에서 재인용). 동기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기술은 자녀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한 실제적인 양육 기술과 그러한 기술에 대한 아버지의 자신감 및 유능감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정도로써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결혼 역동성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은 직장의 조건과 정책 등을 포함하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 증가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다(Lamb, Pleck & Charnove et al., 1987; Pleck, 1997; 박희선, 2016에서 재인용).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부모들의 선호를 맞추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녀를 다루는 기술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단순한 지식이나 특정한 기술을 습득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태도, 의도,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더

크다. 아무리 좋은 양육 기술이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하여 아버지가 본인의 역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실제 참여를 하는 행동으로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가치관, 태도, 의도 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한 측면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성역할태도는 개인이 성에 따른 행동 및 역할에 대해 가지는 규범적 인지정도를 말한다.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가 성에 따른 역할공유를 중시하면 전통적 태도를 의미하고 성에 따르지 않고 역할공유를 중시하면 근대적 태도라고 본다(강기연,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남성이 가사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의한 성역할태도는 부부간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므로 부부의 양성평등적인 성역할태도가 요구되고 있다(이미숙, 1996).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관련된 연구는 핵가족화 및 취업모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많으며(박성덕·서연실, 2016; 옥경희·천희영, 2012),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규명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부모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함께 하는 동반자인 아내의 지지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버지의 개인내적 차원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지와 제지 차원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영환(200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 참여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아내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자인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제지 차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er)을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어머니가 남편의 자녀 양육능력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남편의 양육행동을 감독하고 간섭하는 일련의 신념과 행동을 의미한다(Allen & Hawkins, 1999). 일반적으로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가리키나 문지기 역할의 의미를 문 열기와 문 닫기로 확장하여 아버지의 참여를 지지하거나 제한하는 차원을 모두 포함시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Van Egeren & Hawkins, 2004). Schoppe-Sullivan, Brown & Cannon 외(2008)는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촉진의 측면인 ‘어머니의 문 열기’와 방해의 측면인 ‘어머니의 문 닫기’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황윤하와 김희진(2015)의 연구를 시작으로 문 열기와 문 닫기의 개념을 함께 포함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 열기와 문 닫기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윤진·임인혜, 2016; Schoppe-Sullivan et al., 2008)에 근거하여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하위 변인은 일직선상에 위치한 하나의 개념이 아닌 서로 다른 독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지영(2008)의 연구를 시작으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후,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의 관계 및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정미라·김민정·이방실, 2015; 황윤하·김희진, 2015)가 보고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의미하게 늘었으며 역할만족도도 높았고, 어머니가 제한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아버지의 참여도가 낮았다는 결과(Barnett & Baruch, 1987; DeLuccie, 1995)가 보고되었다. 이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의 연구이며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비롯되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제지 측면만을 포함하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라는 결과(Fagan & Barnett, 2003; Schoppe-Sullivan et al., 2008)에 비추어볼 때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의 문 열기 및 문 닫기 행동은 아버지 개인이 갖고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실제 양육 참여여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써의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관계적 요인으로써의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각각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적절한 양육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의 주당 총 근무시간, 자녀의 수, 양육지원 유무)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성역할태도,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 및 자녀의 수를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어머니의 문 열기, 어머니의 문 닫기)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을 임의로 표집하여 그 중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다섯 곳에 찾아가 만 3~4세 유아 자녀(만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를 둔 전일제 맞벌이 부부 184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의 주당 총 근무시간, 자녀의 수, 양육지원자 유무)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성역할태도,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근무시간, 양육 참여도 및 성역할태도는 아버지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의 수, 양육지원자 유무 및 문지기 역할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 양육 참여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환·이진숙·조복희(1999)가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 노릇’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양육 참여’에 관한 26문항과 ‘양육 책임감’에 관한 14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나, ‘양육 책임감’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실질적인 양육 참여 행동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양육 책임감’ 요인을 제외한 ‘양육 참여’의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양육 참여’의 하위 요인은 발달적 지지(예 :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다), 돌보기 및 지도(예 : 자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함께하는 활동(예 : 자녀와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한다)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질문지의 문항마다 최고점에 해당하는 횟수를 제시하였다(예 : 매우 그렇다 - 주 1회 혹은 월 4회). 총점은 26점에서 104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 참여도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양육 참여도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이다.

나. 성역할태도

아버지의 성역할태도는 Demaris와 Longmore(1996) 그리고 Kulik(199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기연(2000)이 구성한 성역할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평가하는 자신의 성역할태도만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은 9점에서 45점이다. 설문지 문항의 예로는 ‘남편이 가정에 경제적 만족만 준다면 가장 또는 남편의 일을 다하는 것이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사 및 자녀 양육은 아내가 주로 담당해야한다고 여기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와 자녀 양육 및 사회생활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인 근대적인 성

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76이다.

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Van Egeren(2000)이 개발한 Parental Regulation Inventory(PRI)를 황윤하와 김희진(2015)이 변안 및 수정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내가 자신의 문지기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남편은 아내의 문지기 행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 질문지만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의 문 열기' 요인 18문항(예 : 나는 남편에게 그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 말해준다)과 '어머니의 문 닫기' 요인 17문항(예 : 나는 남편을 비난한다)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Likert식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문 열기'는 18점에서 108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하고, '어머니의 문 닫기'는 17점에서 102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각 하위 변인의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어머니의 문 열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문 닫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어머니의 문 열기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77이며 어머니의 문 닫기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79이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예비 조사는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40쌍을 배부하여 199쌍이 수거됨으로써 82.92%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중 아동이 해당 월령에 포함되지 않거나,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15쌍을 제외한 총 184쌍(부=184, 모=184, 총=368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측정변인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및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하위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윤진·임인혜, 2016; Schoppe-Sullivan et al., 2008)에 근거하여 두 변인의 총점이 아닌 하위 변인 각각의 총점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문 열기, 어머니의 문 닫기 요인을 각각의 독립변인으로 보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어머니의 문 열기, 어머니의 문 닫기)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및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맞벌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편이 만 38.43 ($SD = 3.18$)세, 아내가 만 36.30 ($SD = 2.87$)세이었다. 교육수준은 남편과 아내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123명(66.8%), 122명(66.3%)으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직업은 전일제 근무를 하는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로 제한하였다. 주당 총 근무시간은 남편과 아내 모두 40시간 이상에서 50시간 미만이 각각 108명(58.7%), 119명(64.7%)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가 106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평균 월령은 만 49.22 ($SD = 6.70$)개월이었다. 양육지원 존재의 유무는 ‘있다’는 응답이 105명(57.1%), 없다는 응답이 79명(42.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 양육 참여도, 성역할태도, 문지기 역할의 점수 범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184)

구분	가능 점수 범위	실제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26~104	34~102	80.89(10.56)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9~ 45	19~ 45	36.94(5.19)
어머니의 문 열기	18~108	37~ 96	63.90(10.08)
어머니의 문 닫기	17~102	24~ 82	56.36(9.70)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성역할태도 및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점수와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양육 참여도 총점의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26점에서 104점 사이이며, 평균점수는 80.89점($SD = 10.56$)이다. 아버지의 성역할태도는 9점에서 45점사이의 가능한 점수범위로 평균점수 36.94점($SD = 5.19$)이다. 문지기 역할의 하위 영역인 어머니의 문 열기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8점에서 108점 사이이며, 평균점수 63.90점($SD = 10.08$)이고, 어머니의 문 닫기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7점에서 102점 사이이며, 평균점수 56.36점($SD = 9.70$)으로 측정되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성역할태도,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상관관계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N=184$)

	1	2	3	4	5
1.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	-				
2. 자녀의 수	.10	-			
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26**	.02	-		
4.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18*	-.18*	.27**	-	
5. 어머니의 문 열기	-.05	.00	.41**	.11	-
6. 어머니의 문 닫기	.16*	.10	-.05	-.01	.13

* $p < .05$, ** $p < .01$.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짐.)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측정 변인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어머니의 문 닫기와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의 수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외에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주당 총 근무시간 및 양육지원 유무의 경우에는 측정 변인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상관관계 표와 위계적 회귀분석 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및 어머니의 문 열기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문 닫기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과 자녀의 수를 포함하여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및 어머니 문지기 역할(어머니의 문 열기, 어머니의 문 닫기)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계수의 공차한계는 .93에서 .99사이였으며, 상승변량은 1.01에서 1.08사이로 1에 가깝고,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투입 순서는 통제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가장 먼저 투입한 후 개인적 요인을 바탕으로 환경적 영향이 작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아버지 성역할 태도,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순으로 투입 순서를 설정하였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측정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beta = -.27, p < .001$)이 길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낮음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양육참여도의 변량에 대해 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6.87, p < .01$). 다음으로 2단계에 투입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또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beta = .25, p < .01$), 전 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6% 증가하여 총 13%의 설명력을 보였다($F = 8.74, p < .001$). 다음 3단계에서 투입된 어머니의 문 열기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해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8, p < .001$), 전 단계에 비해 설명력은 14% 증가하여 총 2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6.27, p < .001$). 요약하면, 주당 총 근무시간이 짧고, 아버지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문 열기를 많이 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어머니의 문 열기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설명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어머니의 문 닫기는 예측변인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투입된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와 어머니의 문 열기 간 상호작용 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5, p < .05$), 전 단계와 비교하여 종속변인의 변량에 대해 2% 증가한 설명력을 보였다. 따

라서 통제변인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어머니의 문 열기,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문 열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총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 닫기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성역할태도와 문 닫기의 상호작용 항 또한 유의하지 않아 표에서 생략하였다.

〈표 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와 어머니의 문 열기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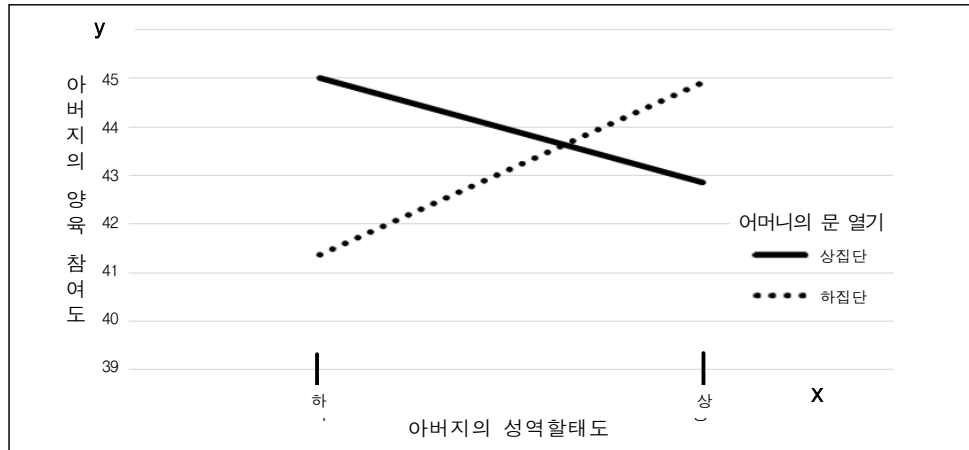
구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4단계 β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	-.27***	-.23*	-.22**	-.20*
	자녀의 수	.06	.10	.09	.09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25**	.20*	.17*
	어머니의 문 열기			.38***	.38***
	성역할태도 x 문 열기				-.15*
	R^2	.07	.13	.27	.29
	R^2 변화량	.07	.06	.14	.02
	F	6.87**	8.74***	16.27***	14.28***
	F 변화량	6.87**	11.66**	34.07***	4.89*

주. β 표준화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4.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 닫기 역할의 상호작용효과

회귀분석에서 검증된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두 가지 변인이 모두 연속적일 경우에는 회귀분석 결과만을 통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림 1]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 열기의 상호작용효과

따라서 각 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값을 각각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두 변인 간 나타나는 상호작용 양상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Aiken & West, 1991; Cohen, West & Aiken, 2003; 서영석, 2010에서 재인용), 연속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를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의 특정 값(평균값으로부터 ±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값)에서 어머니의 문 열기와 종속변인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간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 회귀선들의 기울기를 [그림 1]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1]의 그래프에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졌지만, 반대로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적게 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만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어

뎡게 달라지는지를 살피고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각 변인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문제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며 어머니는 문 닫기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방해하고 부부 공동양육을 저해하는 요인인 어머니의 문 닫기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적정 시간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안수미·이기영·이승미(201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가 자녀 돌보기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았다는 보고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장시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아버지의 육아 휴직 및 주당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시 퇴근을 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수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유계숙, 2010b; 이재법,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인숙(2005)의 연구에서는 현재 자녀가 여아일 경우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자녀가 남아일 경우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남아 선호 사상을 내포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수가 많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종속변인으로 살펴 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그리고 어머니의 문 열기 행동이 유의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아버지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강학중과 유계숙(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 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수록 실제로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신념과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며 실제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

사 및 자녀 양육을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실제 양육 참여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묻는 양육 신념과 함께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이영환·김정희·차평·한지현, 2016)의 결과 아버지의 양육 신념이 근대적이고 어머니의 문 열기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졌으나 어머니의 문 닫기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하와 김희진(201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문 열기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어머니의 문 열기였다. 이는 Maurer, Pleck와 Rane(2001)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개인적인 신념보다 배우자의 태도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차단 또는 간섭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등 지지하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자녀의 수와 어머니의 문 닫기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수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외에 양육지원을 도와주는 제 3자의 존재 유무와 함께 그 제 3자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어머니의 근무시간이나 양육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많고 적음이 직접적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성역할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문 열기는 강한 예측변인이었던 것과는 달리 문 닫기는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시적 양육 참여시 이에 대해 문 닫기를 많이 하는 것에 유의한 상관관계 결과가 나타난 것에 근거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양육참여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가끔씩만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아버지에게 문 닫기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 닫기는 이러한 아버지의 근무시간, 자녀의 상태나 발달 정도에 대한 지식 등에 대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더 상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있어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문 열기 및 문 닫기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문 열기와의 상호작용 항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문 닫기와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문 열기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버지가 양육에 더욱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작용하였으나, 아버지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오히려 적게 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자율권을 주고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며, 아버지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어머니가 보다 적극적인 격려와 참여에의 유도 및 지지가 더 큰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주도적인 자녀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이정순, 2003),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많이 했을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는 이와 연관성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문 열기 문항에는 ‘남편이 도움을 주도록 유도한다.’, ‘해야 할 일에 대한 힌트를 준다.’ 등과 같은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해 아내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혜영과 이숙현(1999)의 연구에서 남편은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을 아내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며, 아내가 남편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기대하는지에 따라 행동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한다. 따라서 남편이 양육 참여 부족에 대한 심리적 압력을 느끼는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아내의 적극적인 격려 행동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행동일 수 있으나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편이 느끼기에는 지나치게 아내가 간섭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 어머니의 문 열기 행동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경우, 양육 참여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해 아내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아내의 일방적인 지지 행동이 아닌 남편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의 일치성을 가진 후 아내가 적절한 부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문 열기 행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하위 변인인 ‘어머니 문 열기’가 상호작용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같은 아버지 개인 내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과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국내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대한 조사를 질문지로 할 경우, 조사대상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질문에 대한 점수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질문지 문항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횟수를 제시해 주었다(예 :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다 / 매우 그렇다 : 주 1회 혹은 월 4회 이상).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중 양육적인 역할과 경제적인 부양자 역할에서 어떠한 면을 더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 역할 수행하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진희, 2004)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질문지의 형태에서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조사하는 질문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변인들의 조사 과정에서 보고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본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타인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것보다 객관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어머니가 보고하고,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아버지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를 보고하는 연구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해 아버지가 보고하는 연구가 많이 존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응답한 자료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어머니의 문 열기 및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문 열기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짧고,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문 열기 행동을 적절히 할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개인 내적인 신념과 함께 어머

니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버지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아버지의 주당 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아버지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이정순, 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부의 공동양육을 권장하는 사회적인 의식의 전환과 함께,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부의 주당 총 근무시간, 자녀의 수, 양육지원 유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연구에서의 오염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인 아버지의 직업은 전일제 근무로 제한하였으며,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부부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을 만 3~4세 유아로 제한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연령이 취학 전 연령이었으며,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 수준이 현저하게 다를 것이라 예상되어 이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령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연령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살펴보았을 때, 다자녀를 가진 아버지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양육 참여의 정도와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연령을 제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주당 총 근무시간, 양육지원 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상관관계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및 근무형태, 자녀의 연령, 양육지원 유무 등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대상을 통해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양육지원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양육지원에 대한 정도를 구체적인 시간단위나 횟수 등으로 질문하여 응답자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답변이 아닌 객관적인 지원의 양적인 측면을 파악

하여 연구를 해 보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주당 총 근무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정규 근무시간 외에 가정이나 직장 이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질문을 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총 근무시간을 답할 때 동일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는 특정 집단을 임의 표집 하여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모든 부부나 맞벌이 부부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자녀를 장시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이외에 맞벌이 부부 또는 외벌이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대리양육자를 통한 가정 내 보육 등 다양한 보육 형태를 포함시켜 보육 형태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 판단되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측정하는 대상을 어머니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측정도구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측정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두 대상에게 모두 조사하여 부부가 인식하는 문지기 역할의 일치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성역할 태도,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모두 자기 보고식 설문을 하였는데 보고자가 솔직하게 답하지 않고 개인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려는 경향을 보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어머니의 문 열기 문 닫기에 대해 제 삼자가 직접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측정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시대가 변화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분담에 참여하는 정도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유계숙, 2010a)나 둘째 출산 계획(정은희·최유석, 2013)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 1차년도 데이터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 때 어머니는 후속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이형민, 2012), 한국아동패널연구 2차년도 데이터 분석 결과, 아버지

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둘째 출산계획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중훈·양소영·성지현, 2013). 또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 분석을 통해 남편의 자녀교육에 대한 결정이나 참여가 높을수록 둘째 출산에 대한 계획이나 실제 출산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은희·최유석, 2013).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측면의 요인들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육아정책 수립에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Lamb-Pleck의 모델(Lamb, Pleck & Charnove et al., 1987; 이영환, 2008에서 재인용)을 달리 요약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아버지의 개인 내적인 변인과 사회적 지지, 제도적 요인과 같은 외적인 관계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개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의지와 지식 또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상의 허용과 관련 있는 근무조건이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충족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도적 요인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마련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근무시간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하고 기초분석을 통해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 및 육아와 관련된 휴직이나 휴가와 같은 제도적 요인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 측면보다는 그 외의 변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양육참여도와 성역할태도와 관계가 있게 나온 결과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정신적 시간적 여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부모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됨을 시사한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 아버지가 양육참여는 많이 하지만, 자녀의 수와는 부적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양육에 참여를 하고자 할시 근무를 줄여야 하고, 직장 일과 양육의 병행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에 대해 인식하고 어머니가 격려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교육하기 이전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질 높은 양육참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제50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가능한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2조(현행 제53조)에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휴일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정 규정에 의하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모두 하였을 경우 최대 1주일에 6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하는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줄어들게 되어 저출산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정 아버지가 자녀 양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 살펴본 채화영과 이기영(2013)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제도는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여성 위주로 정책이 시행되어 남성들의 업무 과중은 현실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남성들은 부부간의 공동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하는 아버지상을 인식하고 있지만 원가족과의 경험으로 인해 내면화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잔존으로 생활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짧고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공동양육을 위해 남성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통해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을 부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 관리, 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강학중·유계숙(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3), 187-219.
- 근로기준법. 법률 제10366호(2010).

- 김중훈·양소영·성지현(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1), 87-102.
- 김진희(2004). 아버지로서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4(1), 89-114.
- 박성덕·서연실(2016).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 양육 참여 및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193-212.
- 박익새·남은영(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 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희선(2016). 아버지의 원가족 양육경험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혜영·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부모로서의 효능감. 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 안수미·이기영·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7(2), 93-119.
- 육경희·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유계숙(2010a).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유계숙(2010b). 유교적 근로관과 성역할 태도가 일-가족지향성과 가족친화제도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91-108.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미숙·조병은·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영환·김정희·차평·한지현(2016).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및 어머니의 문지기행동 비교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207-226.
- 이영환·이진숙·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은실·최혜영(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양육 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7(5), 13-22.
-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재법(2015).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직무만족과 자녀 양육 참여가 가정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순(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동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7(4), 53-67.
- 이지영(2008).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과 자녀 양육 참여: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형민(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 이화영·유성모(2011). 공감, 자아존중감, 개인가치관이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을 중심으로. 뇌교육연구, 7, 33-70.
- 정미라·김민정·이방실(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 11(2), 355-373.
- 정은희·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조금희(2016).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4), 49-68.
- 조윤진·임인혜(2016).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역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육아지원연구, 11(2), 33-57.
- 채화영·이기영(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대한가정학회지, 51(5), 497-511.
- 통계청(2016). 가사분담 견해 및 실태. <http://kostat.go.kr>에서 2017년 8월 6일 인출.
- 황윤하·김희진(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부부의 인식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0(2), 55-73.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1), 29-40.
- DeLuccie, M. F. (1995). Mothers as gatekeepers: A model of maternal mediators of father involve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115-131.
- DeMaris, A., & Longmore, M. A. (1996). Ideology, power, and equity: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3), 1043-1071.
- Fa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 Kulik, L. (1999). Marital power relations, resources and gender role ideology: A multivariate model for assessing effec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89-207.
- Marsiglio, W. (1991). Patern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973-986.
- Maurer, T. W., Pleck, J. H., & Rane, T. R. (2001). Parental identity and reflected-appraisals: Measurement and gender dynam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309-321.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Van Egeren, L. A. (2000). *Parental gatekeeping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Michigan, US: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논문접수 11월 7일 / 수정본 접수 11월 30일 / 게재 승인 12월 12일

·교신저자: 강민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이메일 mjkgang@yonsei.ac.kr

Abstract

Effects of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Maternal Gatekeeping on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mong Dual Income Families

Sun Ju Park and Min Ju Ka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maternal gatekeeping on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maternal gatekeeping on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fter controlling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84 mother-father pairs of dual income families who have a 3 to 4 year-old child currently enrolled in a child care center in Gyeonggi Province.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increased as the father's working hours were shorter, as they had mor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and as the mothers showed more gate opening behavior. However,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and the maternal gate closing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Second,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the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maternal gate opening on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More specifically, the fathers wi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showed more childrearing involvement when the mothers showed more gate opening behavior, while the fathers wi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showed more childrearing involvement when the mothers showed less gate opening behavior.

Key words: dual income families,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gender role attitudes, maternal gatekeeping